

꽃보다 진한 선지식들의 범향 올 봄에도 붉게 피었네

32 동백꽃 속의극락 선운사

선운사 골짜기로
선운사 동백꽃을
보러 갔더니
동백꽃은 아직 일러 피지 안했고
막걸릿집 여자의 육자배기 가락에
작년 것만 상기도 남았습디다.
그것도 목이 쉬어 남았습디다.

미당 서정주(未堂 徐廷柱, 1915~2000)의 절정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바람 불어 설은 날’ ‘눈물처럼 후두둑 지는 꽃’을 노래한 송창식의 유연한 가락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붉은 동백이 후두둑 눈물처럼 지고 나서야 선운사의 봄은 봄으로 피었습니다.

선운사의 봄은 붉은 눈물을 바람결에 흩날리고서야 제대로입니다. 누이의 분홍 치맛자락 같은 진달래 무더기와 노오란 산수유, 화사하게 피었다가 후르르 후르르 흩날리며 풍장(風翔)을 치르는 벚꽃 잎들이 도솔암 내원궁 지장보살의 품으로 귀의하고 나서야 선운사 봄은 제대로입니다. 꽃이 진 자리에 열매가 맺히는 그 단순한 가르침 앞에 못 생명들이 일제히 숨통을 터 붉을 여는 것입니다. 꽃이 이미 열매고 열매 속에 꽃이 있음을 알아차리라고.

너른 주차장을 지나 선운사 경내로 들어가는 어귀에서, 도랑 건너 있어진 역사처럼 자그맣게 앉은 돌명아리를 먼저 만납니다. ‘미당서정주사비’. 요즘은 새로 세워진 커다란 사비가 있지만, 애초의 그 자리에서 육자배기 가락에 묻은 동백꽃의 환영(幻影)을 노래했던 미당의 시혼(詩魂)이 더 진한 감동으로 다가 옵니다. 시인이 이승을 떠난 지 10년, 아직도 막걸리 같이 걸걸한 목소리로 입을 찻찻 다시며 동백꽃을 어루만지는 시인의 얼굴이 거기 살아 있는 것입니다.



추사 김정희가 쓴 백파 스님의 화엄종주백파 대율사대기대용지비 후면.



근대 선운사를 대표하는 영호당 정호 스님의 부도.



근래 새롭게 단장된 선운사 부도밭. 근현대 고승 부도와 탐비 20여 기가 정연하게 모여져 있다.

백파 탄영 정호 스님 등 부도와 비 정갈하게 정돈 ‘대기대용’ 했던 근현대 스님들의 범문 들리는 듯

선운사 부도밭은 절 오른쪽 동백나무와 전나무가 우거진 숲속에 있습니다. 터를 넓게 잡고 눈썹담을 두른 사각(四角)의 부도밭. 근래에 말끔하게 단장했습니다. 꽃이 피고 새가 우는 봄날의 정경을 응시하고 있는 부도와 비석들이 봄나들이 나온 행락객들의 발자국 소리를 헤아리고 있습니다.

공은 진입로를 따라 배알문을 들어서면 큰방에 모여 앉은 큰스님들을 배알하는 느낌이 저절로 듭니다. 불기운에 들쭉이는 훗날세가 한 시대를 품이었던 선지식들의 체취일 것만 같습니다. 스승은 가고 후학은 남아 그 가르침을 돌에 새기고 가슴에 새기는 일, 그 경건한 순환이아말로 중생계에 봄이 오고 가을이 오는 소식에 다를 않습니다. 선운사 부도밭에서 만나는 선지식들은 이름만 들어도 저절로 마음이 청량해 지는 스승들입니다.

부도밭 가운데서 걸음을 멈춥니다. 화엄종주백파대율사대기대용지비(華嚴宗主白坡大律師大機大用之碑). 사각의 오석 빛돌에 두 줄로 내려온 긴 비명이 알지 못할 기운으로 발목을 잡습니다. 추사 김정희의 글씨입니다. 비문을 지은이 역시 추사입니다. 비의 뒷면을 가득 채운 추사의 찬문은 그 아름다운 문장 속에 한 선지식의 일생을 응축하고 있지만 글씨도 활달자재하게 살다간 도인의 풍모를 담아 있으니 과연 추사입니다. 대기대용, 큰 기틀로써 크게 쓴다? 자고로 수행자는 그것이 커야 합니다. 큰 그릇은 비우는 데서 만들어지고 비워진 그릇은 온 세상을 담

습니다. 담아서 다시 버리고, 버린 곳에 다시 담기를 반복하는 동안 진리의 향기가 스미고 스미어 법의 만리향(萬里香)을 응결시키는 것입니다.

조선 후기 한국불교의 종장 가운데 한 분인 백파공신(白坡公愼 1767~1852). 고창에서 태어나 열두 살에 선운사로 출가한 백파 스님은 당대 화엄학의 대가였던 설파상언(雪坡尙彦)에게 일승원교(一乘圓敎)를 배우고 구족계를 받았습디다. 26세에 백양산 운문암에서 설법을 했던 스님은 구암사에 들어가 설봉(雪峰)의 법을 받고 백파당이라는 호를 받으십니다.

수행자는 떠나는 사람입니다. 발길을 돌려 떠나고 마음을 돌려 출가에 재출가를 거듭하는 것이 수행의 바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마흔 다섯 살, 백파 스님은 문자에 얽매어 강의하는 자신을 철저히 반성하고 5년간 선에 매진합니다. 사교입선(捨敎入禪). 문자로서의 교학을 버리고 선정에 들리는 것은 무조건 책보는 것을 배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자 공부로 투과하여 선정에 들으로써 완전한 진리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잘못 이해하여 글공부를 하면 선수행에 방해가 된다는 견해가 없지 않으니 크게 잘못된 풍조입니다.

말과 뜻은 문자라는 방편을 의지하지 않고 드러낼 수 없습니다. 부처님의 삼처전심(三處傳心)으로 언어가 끊어진 자리의 맛을 본다 고 하여 누구나 참선만 하면 꽃을 뜯는 소식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은 부처의 마음이고 교는 부처의 말씀’이라는 견해도 결국은 마음과 말씀이 둘이 아니게 회통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 논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백파 스님 역시 문자농음을 반성하고 정혜결사(淨慧結社) 운동을 벌였고 자신의 선사상을 <선문수경(禪門手鏡)>이란 책으로 밝혀냅니다. 여기서 백파 스님은 일제의 선사상을 마음의 청정함(佛)을 큰 기틀로 삼고(大機) 마음의 광명을 크게 써서(大用) 정경과 광명이 함

께 배풀어지는 도(道)를 재현했 습니다.

백파 스님이 자신의 견해를 밝히자 초의의순(草衣義梅 1876~1866)이 다른 견해를 드러내며 논쟁이 시작됩니다. 이들 선지식들의 논쟁은 추사 김정희에게도 전이(轉移)되는데, 추사는 백파 스님의 오류를 편지로 적어 보내고, 다시 백파 스님은 137자의 논증을 담은 답을 보냅니다. 서신으로 교환하던 이 논쟁은 조선 후기의 불교사상계를 뜨겁게 달구게 됩니다. 그리고 대를 이으며 20세기 중반까지 이어지니 아름다운 논쟁은 시대를 초월해 구법의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월종 3년(1852) 구례 화엄사에서 입적한 백파 스님의 부도는 순창 구암사에 있지만, 비는 입적한 지 6년 후에 조성되어 선운사에 모셔졌습니다.

부도밭 맨 윗줄 오른쪽에 영호당 정호(映湖堂 鼎錫 1870~1948) 스님의 부도가 있습니다. 그리 화려하지 않아 질박한데, 그 질박한 이아말로 위대한 삶의 주인공다움을 느끼게 합니다.

널리 알려진 박한영(朴漢永)이라는 호칭은 속명이고 석전(石顛)과 영호는 법호입니다. 석전이란 법호는 추사가 백파 스님에게 ‘석전’과 ‘만암(漫庵)’이라는 글씨를 써 주면서 ‘법손 가운데 도리를 아는 자가 있게 되면 이 호를 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 한 것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정호 스님은 백파공신 스님의 법을 이었다는 뜻이겠습니다.

선운사 아래 절마재에서 태어난 서정주를 시인으로 만든 것은 선운사의 선지식 정호 스님이었습니다. 미당은 정호스님에게 불교정신을 배웠고 그 인연으로 동국대학교의 전신인 중앙불교전문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물론 그 인연의 끈이 미당을 동국대에서 재직하게 하고 당대 최고의 시인이 되게 한 것입니다.

전북 완주에서 출생한 정호 스님은 장승 백양사 환승(幻勝) 스님에게 사교를, 선암사 경운(馨雲) 스님에게 대교를 이수했고, 1895년 순창 구암사에서 설유(雪乳) 스님의 법을 이어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국운망실(國運亡失)이라는 시절인연의 흐름을 외면하지 않고, 세간의 일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 만해 한운은 스님과 불교유신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왜색불교로 변해가는 조선의 불교를 지키며 후학 양성에 매진했고 시문에도 능해 400여 수의 시를 수록한 <석전시초(石顛詩抄)>를 남겼습니다.

조국의 광복 후 조선불교중앙총무원의 초대 교정(지금의 종정)에 추대된 스님은 1948년 초, 정을 내장사를 찾아가 주지인 매곡(梅谷) 스님에게 ‘나 여기서 죽으려고 왔다’는 농담 같은 한 마디를 남기고 입적했습니다. 도인에게는 죽음도 허투루 잡자리에 드는 것과 다르지 않기에 그렇게 천진한 한 마디가 가능했습디다. 정호 스님의 문하에서 청담순호(靑潭淳浩)와 운허용화(耘虛龍夏) 스님, 미당 서정주 시인이 나왔으니 한국 현대불교의 청정승풍과 교학의 토대가 여기서 마련되고 한국문학의 찬란한 빛깔이 여기서 계양된 것입니다.

선운사 부도밭에서는 경당당 서관, 환승당 탄영, 금호당 동일, 운기당 성원, 청우당 경운, 석문당 남곡, 운파당 원규, 향엄당 대화 스님 등등 선지식들의 찌렁찌렁한 범문이 들리는 듯 합니다. 동백이 야 시간이 되면 피고 지는 것, 시간 자체를 초월해 한 땅이 돌로 남은 선지식들의 삶과 가르침은 꽃이 피고 지는 일에 관여하지 않으며 깊은 침묵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치고, 속세의 맺고풀어 절은 순례자는 선운사 부도밭을 나서서 순간부터 막걸릿집 여자의 구성진 육자배기 가락에 취해 버리고 싶어집니다.

임연태 (시인 · 본지는설위원)

· 노동부 지원 · 사회적기업(예비) · 초의신دا 최고금상 수상 T:061-285-0301~2
· 청와대 사랑채 납품 · 김포공항 4F 입점

햇차 | 금문인 | 제다 | 실습

단 한번의 기회
노동부에서 인건비 전액을 지원받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햇차를 구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품질은 대한민국 특허청과 세계가 인증한(최고금상) “다성 초의차”입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만 선착순 선금 주문을 받으시, 착오 없이 기간 내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선착순 1만통(1통 100g) 주문 받습니다.
우선은 접수가 마감되었습니다.
세탁 50,000원 → 20,000원(4월20일까지)
중작 30,000원 → 10,000원(4월30일까지)
배송 : 4월25일~5월30일
※ 행사기간 이후에는 정상 가격으로 판매 됩니다.

차를 직접 만들어 보세요

- 제다실습
 - 차잎따기
 - 차의 종류와 제다법 특강
 - 제다실습 및 심사평가
- 실습 차 종류
 - 2010 햇차(녹차) · 청차 · 황차
 - 보이차 · 떡차 제다실습

※ 단체 · 개인 모두 접수 가능하며 인원이 10명 이하일 경우에는 제다실습 위주로 진행됩니다.
※ 실습비 : 1인 1만원, 차잎 1kg당 1만원~2만원 (5월 부터)

(사)초의학술문화원 · 일지암영농조합법인 공동주최
입금 : 농협 635070-51-049724 일지암 국민은행 796201-01-376888 (사)초의학술문화원
전화 : 061-285-0301,2 팩스 : 061-285-0304 choyetea.co.kr 후원 : 무안군

▲초의선사 동상 ▲초의선원 ▲제다체험 ▲다도체험 ▲특허증 ▲최고금상 상패

서해 천안함 전사 장병 추모 및 국가의 안녕 기원 수록 고훈 천도 대제

귀의 삼보하옵고
불자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의 광명이 함께하시길 기원 합니다.

대한불교 조동종에서는 서해 천안함에서 전사하신 장병들의 고훈을 위로하고 나라에 안녕을 기원하는 수록대제를 서해 선상에서 봉행 하고 7일간 중국 선종사찰 성지순례를 봉행 하오니 수록천도대제에 수희 동참하시어 모든업장이 소멸 되시길 바랍니다.

- 일 시 : 2554년 5월 29일 (음 4월 16일) 6박 7일
- 장 소 : 구려산 소림사 운대산(중국)
- 동참금 : 63만원
- 주 최 : 대한불교 조동종
- 후 원 : 풍경여행사
- 문의처 : 02) 2091-0408 / 02)936-0419
- 전화주시면 일정표를 보내드립니다.

목조선풍 대한불교 조동종